[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10 [24~26]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A]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돌 우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B]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었지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었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아 [C]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립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립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D]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E]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 오들막: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 칸델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1.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B〕: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C〕: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D〕: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험상궂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 기>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읽기 전 활동

(가)와 (나) 시에서 귀소 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귀소 의식은 (가)에서는 화자의 귀향을, (나)에서는 모성적 세계로의 회귀 추구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한 귀소 의식이 (가)에서는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다시 떠나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으로 결말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돌 우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었지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 오들막 :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 강낭콩.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과거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 3연까지는 과거 자신이 떠나오기 전 고향의 모습으로, 4연에서는 자신이 고향을 끝내 떠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2, 3연만으로 고향의 모습임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보기>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귀소 의식'이 해당 시의 핵심 정서임을 알고 넘어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었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아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립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립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고향을 떠나 '살길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은 화자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큰따옴표를 활용한 6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고향의 토속적인 풍경을 드러내며 화자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고향이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리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이 머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이러한 고향의 부름에 응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먼 길'을 돌아와서 본 고향은 자신이 상상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와 달라져 버린 고향의 모습에 화자는 '버들방천'과 '물방앗간'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자는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여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자는 고향에 '꽃은 피지 못했다'며 다시 떠나가고자 합니다.

#작품 총평

하나하나의 시어에 집착하여 해석하기보다는 <보기>에서 드러나는 귀소 의식에 집중하여 해석하였다면 화자의 심리나 태도의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듯 합니다. 화자가 고향을 떠나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도중 고향의 부름에 이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이 바라던 고향의 모습이 아님에 실망하고 다시 떠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칸델라 :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의 어린 시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화자는 램프불 밑에서 밤중에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자라면 자랄수록 외부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조금 자라서'는 밖의 금점꾼과 아내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소년' 시절에는 가설극장의 간판과 가겟방의 불빛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밖에 관심을 갖던 화자는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고 바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가며 다양한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렇게 밖에 관심을 가질수록 점점 자신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화자는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라며 다시 어린 시절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함을 <보기>를 통해 짚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시야가 점점 외부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외부 세계로 시야가 확장될수록 어째서인지 가장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본인을 자각합니다. 이는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시의 흐름을 빠르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1.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A〕: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주는 하얀 박꽃과 당콩 너울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며, '무너진 돌담'을 통해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인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② 〔B〕: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의 심정을 과거의 사물인 '등잔불'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아 화자는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고향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잔불'에 투영된 심정은 친밀감이 아닌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③ 〔C〕: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고향이 화자에게 건네는 말을 시 속에서 큰따옴표를 통해 인용하면서 화자가 고향의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와 같은 시적 공간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④ 〔D〕: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의 내면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에 비유하여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음을 드러냅니다.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점은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⑤ 〔E〕: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며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은 서로 대비되는 속성은 맞으나 이를 통해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화자가 어렸을 때 '칸델라 불'의 빛을 통해 본 밖의 모습이고, '휘황한 불빛'은 화자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소년'이 되었을 때 '전등불'의 빛을 통해 본 밖의 모습일 뿐입니다.

② '험상궂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험상궂다'와 '생때를 쓴다'가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어휘가 부정적인 어휘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동 범위의 확대는 화자의 모성적 공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램프불', '칸델라불', '전등불'을 통해 화자가 보는 세계는 '어머니와 할머니', '금점꾼들과 아내', '가설극장과 가겟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세상이 넓다고 알'게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개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자신이 어릴적 생각했던 공간의 향수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화자가 모성적 공간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좀 더 수월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③

<보 기>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향이 자신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부는 화자의 모습에서 또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나)에서는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자는 이미 밖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넓어진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는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세상의 전부'였던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날 때 품었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희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느리고' 나간 대상이 '마음의 불꽃'인데 '마음의 불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희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단순하게 칸델라의 불꽃으로,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가)에서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멀리로 낯선 곳으로' 떠난 후의 이야기이므로 고향을 떠나 겪은 삶의 힘겨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대처로 나와' 경험하는 재미를 의미합니다.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뒤에 등장하는 인용을 보아 고향의 부름으로, 이를 귀에 담았다는 것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부름에 이끌렸음을 의미합니다. (나)에서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를 통해 화자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는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던 의식을 가졌음을 드러냅니다.